

— Sat-3 —

호두까기 식도에서 marshmallow 식도조영술 소견

연세의료대 내과 조민호*, 박효진, 지상원, 이상인

목적: 비심인성 흉통이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식도내압검사시, 식도에 정상 연동운동을 보 이면서 식도 원위부에 고전폭 수축파가 관찰되는 경우 호두까기 식도로 정의하며 이는 비심인성 흉통 환자에게 식도내압검사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소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호두까기 식도의 임상적 의의에 관해서는 아직 이설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식도내압검사를 통해 호두까기 식도로 진단 받은 사람들에게 marshmallow 식도조영술을 실시하여, 그 소견과 증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식도 내압검사 소견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식도내압검사상 호두까기 식도로 진단된 35예와 정상소견을 보인 3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증상에 따라 연하곤란, 비심인성 흉통, 인두종괴감의 증상군으로 나누었으며, 식도내압검사 후 1주일 이내에 marshmallow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여 정상, 경도, 중등도, 중증도의 네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두 군에서의 marshmallow 식도조영술의 결과를 비교하고,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식도내압검사상 식도 원위부 압력과 marshmallow 식도조영술 등급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호두까기 식도로 진단된 35예 중 12예에서, 대조군에서는 37예 중 7예에서 marshmallow 식도조영술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2$). 호두까기 식도 환자의 증상과 marshmallow 식도조영술에서의 이상소견과의 관계도 유의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p=0.587$). 그러나 식도 원위부 압력과 marshmallow 식도조영술 등급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99$, $p=0.016$).

결론: 호두까기 식도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marshmallow 식도조영술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나, 식도 원위부 압력과 marshmallow 식도조영술 등급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marshmallow 식도조영술은 호두까기 식도로 진단 받은 사람에서 추적 검사시에 식도내압검사를 대체할 만한 검사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 Sat-4 —

대장내시경으로 진단된 후 자연정복된 충수돌기 중첩증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경성✉, 박종현, 조영석, 이보인, 최황, 김성수, 채현석, 한석원, 이창돈, 최규용, 정인식, 선희식

충수돌기 중첩증은 전체 충수돌기 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불과 0.01%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1858년 McKidd가 처음 보고한 이 후 전세계적으로 약 200례가 보고 되었다. 많은 수에서 10세 이전에 발생하고, 그 임상경과는 무증상에서 급성 충수염의 증상이나 우하복부의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여 과거에는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거나 응급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에는 충수돌기 절제술이 시행되기 전에는 진단되기 매우 어려웠으나, 최근 대장내시경의 발달로 수술전 진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진단의 증가로 고식적인 개복술이 아닌 원인질환과 임상증상을 고려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비특이적인 증상과 우하복부 압통이 있는 61세 여자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충수돌기 중첩증이 대장내시경 시술 후 자발적으로 정복되고, 증상소실을 보여 이후 계속적인 경과 관찰하는 환자를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던 61세 여자가 소화불량과 오심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상 당뇨병을 받았고 이학적 검사에서 우하복부 압통이 있었으나 종물은 만져지지 않았고, 생체활력증후와 검사실소견, 흉부단순촬영, 복부단순촬영에서는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내원 7일 후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맹장내로 돌출된 6cm 크기의 깨끗한 점막을 가진 함입된 충수돌기가 관찰되었다. 충수돌기는 경미한 발적을 동반하였고, 주위 맹장점막의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원인질환을 알아내기 위해 무작위로 충수돌기 개구부에서 조직생검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결과 경미한 염증외에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환자의 증상은 소실되었고, 내원 9일째에 복부전산화단층촬영과 복부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대장내시경검사서 관찰되었던 충수돌기의 함입은 보이지 않고 자연정복되었고, 충수돌기의 부종과 약간의 주위 입막절염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장중첩증이나, 원인질환으로 의심할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이후 다른 치료를 거부하고 더 이상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다.